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

■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10:30 - 13:00

■ 장 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 제목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
역시 문제는 ‘인정’이다!

■ 발표자: 전상진(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관 과제: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의식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 연구진: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

- 역시 문제는 ‘인정’이다! -

전상진(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후기청소년?

최근 “2040세대”라는 말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이를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했던 구호를 빌려 말하면, “멍청아! 문제는 세대라구” 정도의 수준이다. 2040세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투표에서 두 편이 분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2040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가 서로 구별되는 투표 성향을 보인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물론이고, 최근의 여러 여론 조사 결과도 편이 갈렸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추세의 지속성 여부다.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추세가 유지, 강화될지, 아니면 약화, 소멸될지 주목된다. 유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주목이 나쁘지 않다. 스스로를 세대사회학자라 소개하는 나로서는—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관심사가 있기에 이런 명찰이 언제나 편리하지는 않지만—세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상황이 반갑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와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라는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나는 2040세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점에서 불편하다.

첫째, 엄격한 의미에서 ‘세대 정치(politics of generations)’를 한국에서 확인할 수 없다. 2040을 하나의 세대라는 단위로 묶으려는 노력은 세대 정치가 이미 현실로 존재함을 전제한다. 세대 정치는 특정한 세대—이 경우 이십대에서 사십대에 이르는 사람들이—가 나름의 경제·가치(이념)·문화적 이해와 관심을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이다. 특정한 세대가 주도하는 세대 정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다른—이 경우 50대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세대와의 갈등이나 대결의 모습을 보인다. 나는 현재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대 정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세대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40세대의 이름으로 50대 이상을

단죄하거나, 반대로 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구호가 등장한 적은 없다.

둘째, 대상 집단이 너무 크다. 30년을 아우르는 단위 개념은 정말 너무 크다. 그 내부의 차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손이 떨어지는 일이지만, 일단 이 단위가 포함하는 사례 수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요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물론 2040이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40대 이하나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세대를 하나의 통일적 단위로 보는 것은 각 덩어리 내부의 차이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다. 2040 내부에는 차이를 넘어서 어떤 긴장이-이하에서 상술-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대 개념의 남용이다. 나는 예전에 한 논문¹⁾에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략히 말하면, 세대라는 용어가 크게 유행하게 된 이유는 중립성과 용이성, 그리고 상품성 때문이다. 세대는 계급이나 계층보다 정치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묘사할 때 세대라는 단위는 다른 사회적 특성들을 무시한 채 단지 나이만을 고려하면 되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라는 용어에 내재된-세대의 어원과 관련되는데-생성·창조와 젊음의 이미지 덕에 타깃 소비자층을 공략할 때 ‘잘 먹힌다.’ 말하자면, 이 상품의 주된 소비자들은 이런 저런 세대다. 너희들은 창조적이며 젊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을 사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날 창조적이며 젊다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없다. 아니, 창조적이지 않고 늙었다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 세대의 중립성, 용이성, 상품성은 이렇게 세대 개념의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남용을 조심하고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대는 지극히 유용한 사회(과)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속절없이 남용되고 오용되어서 결과적으로 폐기 처분되기에는 세대

개념이 너무 아깝다.

지금 상황에서 후기청소년²⁾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위에 언급한 사안들과 연결된다. 즉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으며 이를 세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하려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국 청소년 연구의 두 가지 문제, 더 정확히 말해서 문제와 연구 공백을 염두에 둔다. (1) 한국의 청소년 연구는(물론 청소년 문화연구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 중심적인 연구 관심이 주다. 다시 말해서 이행 중심적(transition-oriented)인 한국 청소년 연구의 일면성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청소년 연구에서 소위 사춘기 청소년(13~18세)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청소년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적절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후기청소년(post-adolescence)³⁾은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둘째, '후기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telling about post-adolescence)'⁴⁾은 다른 세대를 고려해야 가능하다. 이것은 이 제언이 사용하는 세대 개념이 '세대 관계'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말한다. 셋째, 새로운 연령세대, 혹은 생애단계의 세대는 "사회적 인정(Anerkennung)"⁵⁾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리고 인정 여부는 세대 관계가 어떤 모습-긴장이냐 갈등, 혹은 유대나 연대-으로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2. 젊어진 40대?!

제목이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절의 시작이 황망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여기서 나의 모토는, ‘급할수록 돌아가자!’ 물론 이런 시작이 바쁜 우리 일상에서 여유를 제공하자는 어쭙잖은 도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런 시작은 제언의 요지(‘둘째’)와 관련된다. 두서없지만 간략히 이를 말하면, 연령집단이나 생애과정의 단계(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정한 속성이 존재하면 생성되는 어떤 자연적이며 사회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어떤 생애과정의 단계(이하에서는 생애단계)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특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를 세대(관계)로 개념화하면 그것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이나 결혼은 성인기의 배타적 특성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이 다른 생애단계, 예컨대 청년에서도 나타난다면, 성인기와 청년의 구별은 힘들어진다. 써놓고도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이 쉽지 않다⁶⁾. 이것을 현재 나타나는 40대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자.

여기서도 일단 시작은 정치다. 향후 다가올 두 번의 선거에서 40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크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40대는 전체 유권자의 22.3%로 20대(17.9%)와 30대(21.2%), 그리고 50대(17.9%)와 60대(20.7%)보다 많다. 둘째, 이 연령대는 보통 보수화가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연령 효과(age effect)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 따위가 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연령 효과의 예로 젊은이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나이가 먹으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이를 사회학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로 설명한다. 이 효과는 성장기에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후

의 경험을 가공하는 원형 모델로 각인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효과는 연령 효과와 상충된다.⁷⁾ 나이가 먹어도 코호트 효과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면, 그것을 우리는 세대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바로 밑에서도 언급되지만, 486을 세대로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이가 먹어도 진보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486! 많은 이들은 바로 이 효과가 '코호트적 세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변한다면,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연령 효과가 코호트 효과를 잠식하면 그 연령층을 세대로 칭하기 힘들다.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연령집단세대 개념이다. 코호트 효과가 아니라 연령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자. 진보의 입장에서 말하면 40대의 마음을 훔칠수록 보수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보수의 입장에서 40대는 중요한 지지기반이기에 꼭 수호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는 '올해 선거의 성패는 누가 40대의 마음을 잡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⁸⁾ 40대를 다루는 데 486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익히 알려진 사항이기에 긴 설명은 필요치 않다. 그냥 486의 정치적 성향을 생각하자. 그들은 MB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와 화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486은 40대를 대표하지 않는다. 단지 목소리가 큰 일군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목할 바는 그러나 전체 40대의 자기인식의 변화다. 다소 길지만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인 홍영림의 얘기를 들어보자.

“지금의 40대가 10년 전의 40대와 정치·사회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02년 갤럽조사에서 40대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50·60대와 비슷하다'가 56%로 '20·30대와 비슷하다'란 44%보다 많았다. 반대로 최근

메트릭스 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40대는 '20·30대와 비슷하다'가 78%로 '50·60대와 비슷하다'란 22%보다 훨씬 많았다.”⁹⁾

전통적으로 40대는 보수적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거나 그렇게 평가된다. 말 그대로 보수층의 믿을만한 지지층이다. 물론 위의 기사가 보여주는 바처럼 그것은 틀렸다. 오늘의 40대는 젊어졌다. 그들은 윗세대보다 아랫세대에 더 가깝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다. 이를 상세히 볼 수 없기에¹⁰⁾ 대략만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연령 규범이 변화했으며 그 변화의 추세는 ‘젊어짐’이다. 이것은 새로운 자본주의¹¹⁾(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윤리와 연결된다. 모든 사람들은 유연하며, 진취적이며,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성인기의 이상은, 따라서 연령단계 규범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즉 이 시대의 미덕은 바로 젊음이다.¹²⁾

여기서 고려할 또 다른 사항은 마케팅(소비)이다. 젊음이 곧 이 시대의 미덕이기에 마케팅은 젊음 그 자체, 혹은 젊음의 약속을 제공한다. 젊음의 프로파간다는 또한 특정 생애단계에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한다.¹³⁾ 이제 교육은, 그리고 학습은 특정 생애단계의 과제는 아니다.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은 상식이자 명령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는 ‘종신토록 학습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종신형”을 받았다.

변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새로운 근대, 그의 표현으로는 유동적, 혹은 액체근대(the fluid modern)¹⁴⁾에서는 정체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identity’에서 ‘identification’의 문제로의 전환이라 표현한다.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은 새로운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어떤 존재성과 고정성

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찾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발명-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발명은 한 번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체성-이라 한때 불렀던 것-은 발명과 재발명으로 변화되어야만-즉 유동적이어야만-한다. 그래서 identity의 자리를 identification이 차지하게 되었다. 논의 맥락에서 중요한 바는 이 과정이 젊음의 이데올로기(밑에서 상술)의 영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성인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고루하기에-달리 말하면 유연하지 못하고, 혁신적이지 못하기에-새로운 근대에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 젊음의 이데올로기¹⁵⁾는 모든 사람들의 온갖 삶의 영역에서 맹위를 떨친다. 생산(노동윤리), 소비(마케팅),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성-과 육체¹⁶⁾-에 그 족적을 남긴다. 이런 삶의 레짐¹⁷⁾과 조건은 기존의 생애단계의 특성적 차이(differentia specifica)를 무력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생애단계의 경계를 흐리게(blurring) 만든다.

3. 생애단계의 탈경계화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그것의 결과와 함의

이 절의 관심사와 관련하여-적어도 영미권에서-꼭 다뤄야 하는 이가 바로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이다. 그의 1982년의 저작, 『아동기의 실종(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은 새로운 미디어, 즉 TV가 ‘어른들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노출하고 폭로함으로써 두 생애단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이 끝나는 상황(『교육의 종말』(1995))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발한다.

그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위의 2절에서 살

핀 바처럼 경계의 와해는 단지 한 방향, 즉 아동기를 성인기가 식민화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어권에서는-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는 디터 렌첸(Dieter Lenzen)의 『아동기의 신화학(Die Mythologie der Kindheit)』(1985)일 것이다-반대의 방향에서의 탈경계화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낭만주의적인 아동(청년) 숭배가 성인기를 점령함으로써 아동기와 성인기의 경계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한 방향이 옳다는 따위의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적어도 2절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처럼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이지만-의 상황은 렌첸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큼을 보여준다.¹⁸⁾ 요컨대 젊음의 이데올로기와 의미론은 본래의 출생지를 떠나 다른 생애단계로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성인기가 실종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즉 “성인 지위가 실종(Verschwinden des Erwachsenenstatus)”되었다.¹⁹⁾ 우리의 주 관심사는 당연히 후기청소년이다. 그렇기에 질문을 바꾸자. 성인 지위의 실종은 후기청소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 성인기의 실종 이후의 후기청소년

새로운 조건에서 청소년의-(사회)심리적인-상황을 가장 잘 포착한 것은 제프리 아넷(Jeffrey J. Arnett)이다.²⁰⁾ 그의 논의를 여기서 반복할 생각은 없다. 그가 지적하는 바의 핵심은 어떤 새로운 사회적 범주의 출현이다. 성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청소년이라 하기에는 너무 늙은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불러야하나. 그래, emerging adult(EA)라 하자.

그의 주장에서 시뮬거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심리 중심성이 거슬린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더 논쟁적으로 말하면 그는 새로운 범주의

“심리적 상태(psychological state)”, 즉 정체성에 주목한다.²¹⁾ 둘째, 새로운 범주의 출현에 주목하지만 구래의 범주들은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첫 번째 사안은 그냥 ‘패스’하고 둘째로 가자. 아넷이 강조하는 EA의 특성에서 적어도 사회경제적인 측면, 특히 불안정한 고용 및 혼인상태는 후기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EA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3절의 얘기를 디딤돌로 삼아-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성인기도 변했다!

해리 블랏터러(Harry Blatterer)는 새로운 성인기(new adulthood)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²²⁾ 그의 논지는 이렇다. 오늘날 성인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동시에 성인기에 대한 규범은 이른바-에릭 홈스봄의 표현으로-서구자본주의의 “황금시대(Golden Age)”에 형성된 것이다. 호황과 복지 국가라는 조건은 ‘완전 고용’과 나름 굳건한 혼인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성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경제적 독립, 부모의 지위 획득, 독립적 삶)이라 표현되는 것들은-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경멸적인 의미에서-‘비정상’, 혹은 ‘아직 아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변했다. 황금시대의 규범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성인이던 아이들이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내던져져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성인은 아이들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동시에-앞에서 말한 바처럼-젊음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 결과는? 확실한 목적지를 상정하는 이행(transition)은 청소년들의 성장 경로로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

만약 블랏터러의 주장이 옳다면 오늘날 세대 관계, 생애단계의 세대 관계는 불필요하게 긴장에 빠져 있다. 그 예화를 다루는 것은 다음 절의 몫이다.

5. 영웅적 세대의 꾸중의 이중주²³⁾, 그리고 안철수²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아마도 그 이전부터 이미 청년들은 사회의 걱정거리였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 이른바 ‘88만원 세대’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들에 대한 꾸중의 합주(合奏)에서 두 가지 큰 목소리를 가려낼 수 있다. ‘고생을 싫어하는 나약한 녀석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녀석들’. 큰 목소리의 두 주인공들은 산업화세대(50대 이상)와 민주화세대(486)다. 오늘날 청년들은 이들 영웅적 세대(heroic generation)²⁵⁾들의 눈에 차지 않는다. 영웅적 세대는 변혁을 이끌었던 청년들이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사회를 보통 영웅적 사회라 일컫는다. 이런 사회에서 영웅은, 그리고 영웅적 세대는 기존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이상향에 대한 믿음을 지니며, 역사적 사명과 사회적 소명을 확신하고, 자기희생으로 대의(大義)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두 영웅적 세대가 젊은이들을 꾸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전쟁의 폐허 더미 속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죽도록 고생’하여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세대, 이들의 눈에 청년들은 “냉난방 잘 되는 사무실”²⁶⁾과 같은 쾌적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약한 존재다. ‘사회와 조국을 위해’ 독재정권과 싸워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에게 사회의 잘못된 규칙을 변화시키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스펙쌓기에만 열중하는 88만원 세대는 답답할 뿐이다. “너희처럼 처신하면 밥되기 딱 좋다.”²⁷⁾

시각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성인들은 청년들을 언제나 현재가 아닌 과거, 즉 자신들의 청년기 경험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겨냥한다. 전통 계승과 현실 변화의 충돌은 예정된 것이다. 영웅적 세대가 출현하면 혁신적 변화가 전통 계승을 압도한다. 기성질서를 의문시하는 영웅적 청년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산업화세대는 자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경제적 근대화의

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기성세대를 공격했다. 민주화세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성인세대를 부정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후속 세대들을 이끌고 가르치려 한다. 그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신들의 치열했던 경험에 있다고 믿는다. 영웅들은 성공의 경험이 있기에 이렇듯 할 말이 많다.

꾸중하는 자들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자들의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서로 대립하지는 않더라도 긴장은 분명 존재한다. 긴장은 한 인물의 출현으로 더 구체화된다. 그가 바로 안철수다.

지금 안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정치 판세의 상수(常數)다. 그를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다. 우리는 그것을 ‘탈영웅적’ 리더십이라 부른다. 반대말은 영웅적 리더십인데, 그것은 영웅적 사회에서 유효하다. 이미 살핀바 영웅적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한다. 여기서 리더는 당연히 영웅일 수밖에 없다. 영웅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영웅적 리더는 보통 지도자나 교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도자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목표와 비전을, 경우에 따라 강압적으로 제시한다. 교사는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을, 때에 따라 강제적으로 가르친다. 리더는 영웅이므로 따르는 무리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대화에 심드렁한 것도 이래서 이해된다. 영웅적 리더는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그들을 이끌거나 가르칠 뿐이다.

영웅적 사회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탈영웅적 사회가 도래한다.²⁸⁾ 그리고 한국은 이미 탈영웅적 사회다. 그것은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하는 사회다. 이 사회에 어울리는 리더, 즉 탈영웅적 리더는 상담자와 본보기에 가깝다.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를 듣고 조언한다. 본보기는 가르치기보다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새로운 유형의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구별되지 않기,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앞에서 이끌지 않는

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조롱될 뿐이다.

탈영웅적 사회가 과거의 영웅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자기인식 때문이다. 어차피 미래를 알 수 없으며 현재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웅=선각자’ 자체가 불가능하다. 탈영웅적 리더나 그를 따르는 무리 모두, 목표와 비전과 해결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리더는 단지 그들의 문제를 경청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조근조근 조언하거나 위로하고,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음을-참고로-보여주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추긴다. 탈영웅적 리더의 목표와 비전은 부추김의 땀감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전형적인 탈영웅적 리더다. 그의 태도는 현 대통령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영웅적 대통령²⁹⁾은 목표와 비전을 명령하듯 제시하며(소통 생략) ‘나를 따르라’고 강압적으로 채근한다. 탈영웅적 시대의 개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유일한 반응은 저항과 냉소와 조롱이다.

6. 다시금 사안으로: 이행이나 모라토리움이나

블랏터러의 주장을 따르면 새로운 조건에서 성인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청소년연구다. 지금껏 청소년연구가 이행의 관점에 강하게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편바 있다.³⁰⁾ 청소년 연구에서도 일상적인 세대충돌이 재연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예를 들어 한상철·조아미·박성희³¹⁾는 청소년기를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인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간주한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조한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21세기의 디지털시대 인간들”인 오늘날의 청소년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 자신을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20

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인간”들이 성인들이 그들의 성장에 개입할 여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연구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서구 사회학계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¹⁾ 서구의 청소년 사회학은 두 가지 분리된 관점,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school-to-work)”의 경로를 주로 연구하는 “청소년 이행 전통(youth transitions tradition)”과 “청소년 문화 연구 전통(youth cultural studies tradition)”으로 발전하였다(MacDonald et al.). 이행 전통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선형적인 목적론 모델(linear teleological model of psychosocial development)”을 기반으로, 직업의 획득을 청소년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Cohen & Ainley). 경험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이행연구 전통과 달리, 하위문화적인 스타일과 저항을 민속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청소년 문화 전통은 사뭇 이론적이다(MacDonald et al.). 문화 전통은 소수의 ‘(반)영웅(anti-hero)’들의 스펙터클한 일상적 문화실천(겉모습, 문화적 퍼포먼스)의 관찰에 “소박하게 헌신(naive commitment)”한다(Cohen & Ainle). 청소년 문화연구는 클락(Clarke)이 의문을 제기한 바와 같이 “젊은 성인들이 국가 정책의 주된 희생자인 실업자가 되는 시기에 특별한 종족(tribes)의 스타일을 해독하는 것의 가치”를 과대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Clarke).

청소년 중심적 관점과 성인세계의 가치관을 내재한 접근방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특정 시각에 편중된 관점이 대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청소년 사회학은 청소년(기)에 대한 “전체적인(holistic)” 조망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MacDonald et al.). 코엔과 에인리(Cohen & Ainley)는 이를 청소년 사회학이 “막다른 골목

1) 여기서 소개하는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연구는 사회학적인 청소년 연구다. 그래서 ‘청소년 심리학’이 청소년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의 상황(최상진 외, 2004)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lind alley)”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등장한다. 맥도날드 외(MacDonald et al.)는 기본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속에서 탈구조화·탈선형화된 이행의 다양한 계기들을 청소년 문화적 관심과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민첸(Minzen)은 지금껏 청소년 연구를 경제주의적으로, 문화주의(culturalism)적으로 “식민화(colonize)”했던 문제를 거시적인 환경으로서 국가와 정치 영역을 논의에 수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청소년 연구의 새로운 모색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상세히 다룰 여유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코엔과 에인리(Cohen & Ainley)의 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은 청소년 사회학의 “막다른 골목”에 “제3의 길”로서 세대 개념을 수용한 청소년 연구를 제안한다.

코엔과 에인리(Cohen & Ainley)는 “청소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전통과 근대성”의 분리와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과 연결됨을 지적한다. 그들이 지점에서 마르크스를 따르는데, 마르크스는 일찍이 세대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인 세대는 “완전히 변화된 환경에서 전통적인〔생산〕활동을 계속하며,〔청소년 세대는〕(...) 완전히 변화된 활동으로 구래의 환경을 변형시킨다”(Marx). 즉 역사를 세대들의 계승과정으로 상정한다면, 전통과 근대성, 그리고 성인과 청소년은 분리를 지향하면서도 서로 결속되어 있는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을 세대 및 세대관계에서 관찰해야만 한다.

개인에게 청소년기와 성인기는 상이한 연령단계(life stage)이며 따라서 각각 구분되는 발달과업(Havighurst)을 가진 독립 범주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세대의 관점에서 청소년과 성인은 고립된 사회적 범주가 아니다. 만하임(Mannheim)이 세대 관계를 ‘동시대인의 비동시성’(Ungleichzeitigkeit des Gleichzeitigen)으로 표현한 바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 세대는 각각 서로 다른 시간대를 지향하지만 동시대인으로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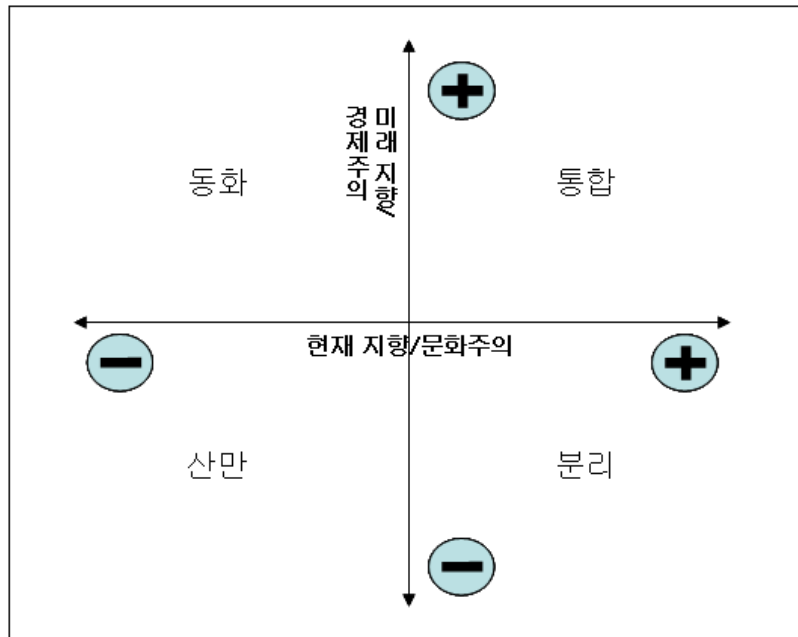
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성장세대인 청소년은 성인으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지향하면서도 성인과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하고 사회적 관계(societal relationship)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청소년은 성인과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청소년기는 독립적이며 현재적인 요구의 실현을 피하면서, 종속적이며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으로 구성되는 **역설적인 시공간**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을 성인과 관계 속에서 세대로 고찰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역설적 상황에서 그들을 파악한다는 의미다. 청소년의 역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의 지평에서 나타난다. 성인 주도의 사회는 청소년에게 성인 자신의 과거에 근거한 미래 지평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과거와 미래의 결합에 반발하여 청소년은 현재와 자기 지향, 즉 또래집단(peer group)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다. 이들에게 미래는 현재의 연속선이 지 과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시간과 삶의 지향의 충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소년 연구의 두 가지 대립적 접근에서도 나타난다.

7. 후기청소년, a liminal stage?

위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다.

■ 청소년의 발달 경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직축은 이행 관점이며, 수평축은 모라토리움 관점이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발표에서 직접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의 사항들을 정리, 언급하면서 제안을 마무리하자.

1. 이제 성인기 규범은 더 이상 유효치 않다. 그런데 이에 준거해서 후기 청소년을 불인정함으로써 세대 관계의 긴장이 생긴다. 역설적인 것은 성인기 규범(목적지로서의 성인)이 여전한 규율적 지식-권력으로 작용하면서도 온 사회를 장악한 '젊음의 의미론'(모든이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의 젊음)이다. 이것은 또 다른 규율적 지식-권력으로 작용하는 데 결과적으로 양자는 모든 생애단계 세대의 역설적 상황을 만든

다.³²⁾ 그리고 이것은 심리사회학적인 ‘치명적 결과’, 혹은 ‘부수적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2. 특히 이런 결과들은 후기청소년들의 실존적(심리사회학적인 것을 포함하는)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를 나는 사회적 인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약하면, 청소년기의 liminal state의 성격을 인정해야 문제적 결과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 liminality는 이행의 뜻과 ‘사이’(in-between)의 뜻을 모두 가진다. 전자는 축소하고 후자는 강화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 인정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후기청소년을 세대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는 청년기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성인기에 대한 이해로 보완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며 오히려 젊음³³⁾이 칭송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후기청소년, EA를 철부지 아이들이라 꾸중한다. 이런 관점은 진정 문제다.

-
- 1)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2004, pp. 31-52.
 - 2) 엄밀하게 말하면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구분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삶의 조건과 제도적 맥락을 의미하며,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제도적 맥락에서 행위자(agency)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청소년을 그냥 청소년기의 의미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청소년을 지칭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덧붙일 것이다.
 - 3) 이 연구는 ‘청년’, 후기청소년(Post-Adolescence), 혹은 젊은 성인을 혼용해서 쓴다. 연령으로 말하면, 20-29세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제도적 맥락을 말한다(주 2, 참조).
 - 4) 눈치 빠른 독자는 이것이 Howard S. Becker의 *Telling about Society*(UPC: Chicago and London, 2007)를 paraphrase 한 것임을 눈치 챌 것이다.
 - 5)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 이현재 옮김. 사월의 책. 2011.
 - 6) 이유는 원래 이 원고를 ppt로 준비하다가 후에 원고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난잡한 원고와 전개에 양해를 구한다.
 - 7)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서술한다. 더욱 정교한 설명은 전상진(2004) 참조하기 바란다.
 - 8)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석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가 흥미롭다. “40대를 읽어라. 선거 세대간 대결서 ‘스윙보터’ 부상”(『국민일보』, 2011. 11. 3.)과 “40대 표심 못잡으면 총선·대선 승

- 리없다”(『내일신문』, 2012. 1. 2.).
- 9) “예전 40대와 전혀 다른 40대”, 『조선닷컴』. 2011. 11 07.
 - 10) 연령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Blatterer. H. "The changing semantics of youth and adulthood." *Cultural sociology*, vol. 4, no. 1, 2010, pp. 63-79.
 - 11) 리처드 세넷.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유병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9.
 - 12) 한국의 보수에게 이 소식은 낭패다. 알려진 바처럼 한나라당의 대표 이미지의 하나는 ‘늙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사건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올해 1월 3일 발표한 결과다. “한나라당, 부자도 싫어하는 부자정당 됐다”, 『프레시안』. 2012. 1. 4. 여기에 ‘부자정당’, 즉 부자만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해지면서 ‘부자들을 위한 늙고 탐욕스런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어쨌든 한나라당의 늙은, 게다가 탐욕스러운 이미지는 ‘젊어진’ 40대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전상진, 최순중. “교육과 현대사회의 종교, 평생학습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28권, 2011. pp. 146-163.
 - 14)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9.
 - 15) 이 용어가 불편하다면 문화나 의미론(semantics)로 바뀌도 상관없다.
 - 16) 여기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 바우만(2009)은 identification을 fitness와 동렬의 다른 사안이라고 본다.
 - 17) 이를 지칭하는 아마도 가장 적합한 용어는 governmentality일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또한 적지 않은 노고(勞苦)를 요구하는바 설명 없이 그냥 간다. 대신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전상진.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5권. 2008, pp. 103-140.
 - 18) 이것이 포스트먼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양방향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 렌첸(1985)
 - 20) 그는 전체 윤곽을 조망하기 힘들 정도로 생산적이다. 판차로 보건대 다음의 저술이 아마도 대표적이 아닐까 싶다. Jeffrey Jensen Arnett..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cultural approach*/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10.
 - 21) 아넷의 얘기를 인용하는 것은 조금 식상한다. 그래서 그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독창적인 논의를 제공하는 코트의 얘기를 인용한다. J. E. Côté. *Arrested Adulthood. The Changing Nature of Maturity and Identity*. NY: NYUP. 2000, p. 31. "Adulthood is now more a psychological state than a social status."
 - 22) Blatterer (2010).
 - 23) 이 절은 필자의 컬럼(“영웅적 세대의 ‘꾸중의 이중주’...‘됐고!’”, 『대학교육신문』. 2010. 1. 25.)의 내용을 손본 것이다.
 - 24) 이 절은 필자의 컬럼(“안철수 현상의 두 가지 이유”, 『대학교육신문』. 2012. 1. 13.)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 25) 영웅적 세대와 탈영웅적(post-heroic) 세대, 그리고 영웅적 사회와 탈영웅적 사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전상진, “세대 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1호, 2010, pp. 127-150.
 - 26) 2008년 12월 1일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http://www.ktv.go.kr/other_pages/radio_speech/radio_speech_view_kor.jsp?cid=310674&gotoPage=6 (검색일: 2012. 2. 3)
 - 27) 이 말은 나꼼수의 김용민의 말이다. 그의 “개새끼론”은 2008년 여름 당시 인터넷을 달궜다.
 - 28) Herfried Münkler, *Der Wandel des Kriesgs. Von der Symmetrie zur Asymmetrie*. (2. ed.) Velbrück Wissenschaft, 2006. 이 연구는 전쟁론에서 논의되던 영웅적 사회와 탈영웅

적 사회를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9) 오해할 만한 표현이기에 덧붙이면, 여기서 영웅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한 대통령의 ‘영웅성’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인식에 기초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 30) 전상진, 정주훈.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집 6호. pp. 261-285.
- 31) 이하 인용문에서는 서지 사항들을 모두 생략한다.
- 32) 이를 어떤 이들은 현대사회의 분열증적 징후라 칭한다. 나는 이를 미국의 인류학자 마틴을 따라 조울적 상태(bipolar syndrom)이라 생각한다. 서지 사항, 시간 관계로 생략.
- 33) 그것의 불안정성마저도 ‘혁신성’과 ‘유연성’,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칭송된다.